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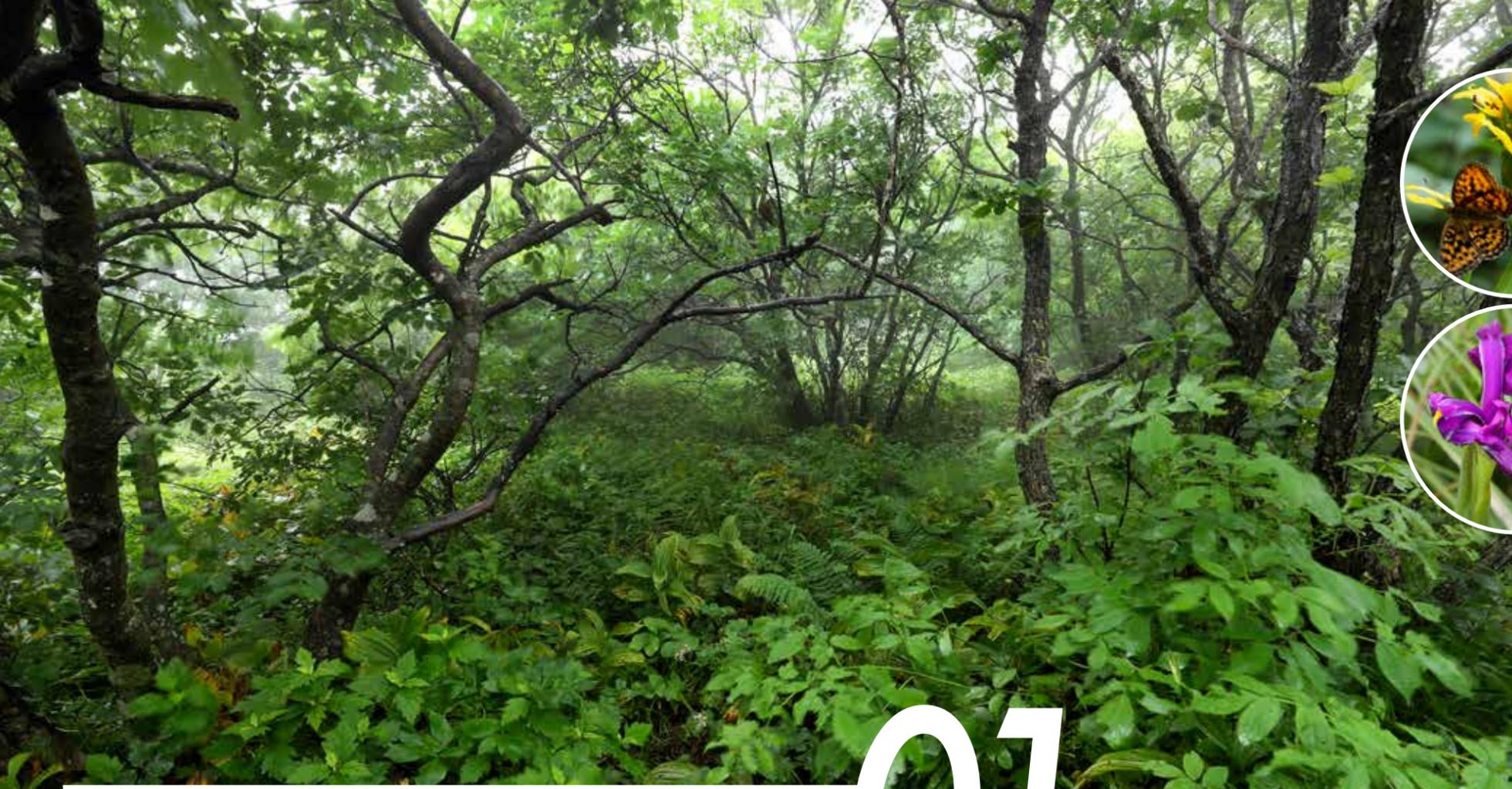
# 습지 Wetland

## 습지 못 생명의 아름다운 보금자리

찬찬히 바라보면 때 묻지 않은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생동하는 못 생명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스치는 바람 사이로 생명체의 수런거림과 꿈틀거림이 들린다.  
습지에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는 시인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마음 주머니에 여유 한 줌 담고 습지에 가면 날것 그대로의 자연과 만날 수 있다.

글 임동근 · 사진 조보희 기자





1 다양한 식물이 자생하는 용늪  
2 곰취꽃에 작은표범나비가 앉아 있다. 3 자줏빛 꽃창포  
4 노루오줌 5 큰용늪 가는 길 6 용늪 비석

**인제 대암산 용늪**

**안개와 바람이 감싼 반만년의 신비**

대암산 용늪에는 안개와 바람이 산다. 자욱한 안개는 그곳을 품에 가두고 좀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순간 세찬 바람에 안개가 웅숭웃친다. 그리고 반만년 세월이 만들어온 신비로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습지는 늪지대, 하천과 연못, 저수지처럼 물기가 있는 축축한 땅을 말한다.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내는 갯벌과 농사를 짓는 논도 포함한다. 지구 지표면의 6%에 불과하지만 습지는 생명의 보고(寶庫)다. 담수 습지에는 전 세계 생물종의 40% 이상, 포유류의 12% 이상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량을 적절히 조절해주고, 지상에 존재하는 탄소의 40% 이상을 저장해 기후를 조절하고, 인과 질소를 제거해 수질을 정화한다. 내륙습지는 홍수를 조절하고, 연안 습지는 기상 변화로부터 육지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급격한 기후변화 속에서 습지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이유다.

**반만년 전 생긴 국내 유일 고층습원**

연일 불뿔이 내리쬐던 7월 중순 우리나라 최초의 람사르습지인 강원도 인제의 대암산(해발 1,304m) 용늪을 찾았다. 용늪은 해발 1천280m에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고층습원(식물 군락이 발달한 산 위의 습지)으로 약 5천~5천200년 전 형성됐다. 지하수면이 높은 데다 연중 5개월 이상이 영하의 기온이고, 170일 이상 안개가 끼는 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고산의 우묵한 지형에 습지가 생겨났다. 대암산에는 큰용늪, 작은용늪, 애기용늪이 있다. 습지 전체의 면적은 1.06km<sup>2</sup>이다. 이 중 큰

01



용늪만 탐방이 허용된다. 작은용늪은 지난해까지 군부대 연병장이 있어 현재 복원이 진행 중이고, 애기용늪에는 아직 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통면 소재지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가아리 탐방안내소에서 출입 확인을 받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른다. 경사가 완만한 입도 양옆으로는 싱그러운 초록빛이 무성하다. 초록빛 나무 태널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한다. 길옆에선 주황색이나 흰색으로 피어난 예쁜 꽃도 볼 수 있다. 산길을 20여 분 올랐을 무렵 돌연 차창 밖 사물들의 형체가 흐릿해진다. 길도, 나무도 희뿌연 안개에 포위돼 시계(視界)는 불과 50m도 되지 않는 듯하다.

그렇게 다시 안갯속을 뚫고 영금영금 산길을 오르기를 20여 분. 드디어 차 10여 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곳 공기는 숨 막히는 폭염이 땀 나라 이야기인 듯 싸늘하다. 점퍼가 필요할 정도다. 감시초소에 걸린 온도계의 눈금은 겨우 영상 10도에 머물러 있다. 오전 10시경 탐방을 예약한 20명이 주차장에 모였다. 용늪 입구 감시초소에서 다시 한 번 신원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탐방에 나섰다.





1 큰용늪에서 식물을 관찰하는 탐방객 2 이탄층의 모습  
3 물웅덩이와 대암사초 군락

### 대암사초 초록 물결 뒤덮어

큰용늪으로 향하는 길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길에서는 멧돼지와 사의 배설물도 볼 수 있다. 일명 '바람골'이라 불리는 지점에 도착하자 정말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김호진 자연환경해설사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 안개가 하늘로 솟구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승천하는 용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용늪이란 이름은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쉬었다 가는 곳'이라는 전설에서 유래했다. 김 해설사는 또 "탐방객들이 산 아래 날씨가 좋으면 희망을 품고 올라왔다가 안개 가득한 모습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안개가 자욱한 것이 용늪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용늪, 해발 1,280m'가 표시된 비석을 지나 신발 털이개에 신발을 털었다. 신발에 묻었을지 모르는 외래종 식물이 용늪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용늪과 람사르습지에 관한 해설사의 설명이 끝나고 본격적인 탐방이 시작됐다.

큰용늪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다는 전망대에 섰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짙은 안개의 장막에 희미한 초록빛만 스며 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인근 편치불과 백두대간의 남한 지역 최북단인 향로봉도 보인다고 한다. 전망대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평지가 나타나고, 초록색 풀이 무성한 들판 가운데를 가로질러 탐방로가 안갯속으로 이어져 있다. 신선이라도 나타날 것 같은 신비로운 분위기다.

이곳을 뒤덮은 풀의 정체는 대암사초. 용늪이 람사르습지 1호로 등록될 수 있게 한 식물이다. 원래 동식물은 죽으면 썩고 분해돼 사라져야 하는데 이곳은 축고 습해서 대암사초가 썩지 않고 갈기갈기 찢어져 쌓이며 '이탄층'이라는 유기물층을 형성했다. 이곳 이탄층은 1년에 약 1mm가 쌓이는데 현재 평균 1m, 가장 깊은 곳은 1.8m나 된다. 김호진 해설사는 "용늪은 라텍스처럼 폭신한 이탄층이 있어 빠져도 죽지는 않겠지만, 이탄층은 한 번 났으면 반경 5m가 무너지기 때문에 데크 밖으로

발을 디디면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갑작스러운 바람에 삼시간에 안개가 걷혔다. 그리고 초록빛 대암사초가 웅덩이처럼 뒤덮은 맑은 풍경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군데 군데 물웅덩이도 보인다. 하지만 용늪의 또렷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간은 10초도 채 되지 않았다.

### 희귀·멸종위기 동식물의 천국

탐방로를 따라 걷다 보면 다양한 식물을 볼 수 있다. 노란색 곰취, 자줏빛 꽃창포, 흰색 꿩의다리, 분홍빛 나도제비난 등이 숨은 듯 고개를 내밀어 방문객을 맞는다. 향기로운 하얀 꽃을 피운 개화나무, 약용식물인 당귀, 범꼬리, 사스래나무, 박새도 볼 수 있다.

용늪은 북방계 식물의 남방한계선이다. 한반도 남쪽에서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이 있다는 뜻이다. 멸종위기종이 많은데 제비를 닮았다는 제비동자꽃, 닳 모양의 닳꽃, 백두산에 많은 날개하늘나리, 어린 모습의 기생꽃 등이 바로 이곳에 있다. 저녁에는 꽃잎을 오므리는 비로용담, 금강초롱꽃, 식충식물인 끈끈이주걱과 개통발도 있다. 하지만 이날 이들 꽃은 볼 수 없었다. 기생꽃은 이미 5월에 피었다 졌고, 제비동자꽃과 날개하늘나리, 닳꽃, 비로용담은 아직 피지 않았다. 용늪에서 가장 많은 꽃을 볼 수 있는 시기는 7월 말~8월 중순까지라고 한다. 9월이면 가을의 한복판에 들어선다.

대암산에는 산양을 비롯해 수리부엉이, 까막딱따구리, 삿, 담비도 서식한다. 봄에는 고라니, 노루, 멧돼지가 용늪 웅덩이에서 목을 축이는 모습이 관찰된다고 한다. 꽃이 화려하게 피고 동물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은 역시 여름이다. 3시간 정도 시원한 용늪에 머물다 대암산에서 내려왔다. 언제 그랬냐는 듯 띄어별이 들판을 이글이글 데우고 있었다.



4, 5 대암산 용늪 자연생태학교

### Tip

#### [ 대암산 용늪 탐방 안내 ]

용늪 탐방은 5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약제로 운영된다. 대암산 용늪-생물자원의 수도 홈페이지(sum.inje.go.kr)에서 2주 전까지, 양구생태식물원 홈페이지(www.yg.eco.kr/plant.php)에서 20일 전까지 출입신청을 해야 한다. 인제에는 서흥리와 가이리 코스가 있다. 하루 3회(오전 9시, 10시, 11시) 출발하는 서흥리 탐방 코스는 대암산 동쪽 서흥리에서 걸어오르는 구간으로 주민감시원이 동반하며 대암산 정상 등반을 포함해 5시간이 걸린다. 남쪽의 가이리 코스는 차량으로 용늪 인근 주차장까지 오른 후 용늪을 탐방하는 것으로 오전 9시 1회만 운영된다. 대암산 정상 등반을 포함해 3시간 정도 걸린다. 양구에서는 오전 10시 차량으로 군부대 연병장까지 이동한 후 용늪을 탐방한다. 대암산 정상 등반을 포함해 총 소요 시간은 5시간이다. 탐방 인원은 인제 서흥리 130명, 가이리 20명, 양구 100명으로 제한된다. 인제 서흥리 코스를 이용한다면 숙소를 서흥리 마을주민들이 공동 운영하는 대암산 용늪 자연생태학교로 정하는 것이 편리하다. 서화초등학교 서흥분교 부지에 TV, 냉장고, 에어컨을 갖춘 빌라식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다. 46㎡(14평) 7동, 63㎡(19평) 1동, 82㎡(25평) 1동이 있다. 옛 분교 건물에는 용늪의 형성 과정, 사계절, 동식물 등을 엿볼 수 있는 용늪체험학교가 마련돼 있다.



# 02

## 무안갯벌

### 바다와 육지가 만든 풍요의 빨밭

갯벌은 풍요롭다. 게, 망둥이, 짱뚱어, 낙지, 조개, 고둥, 갯지렁이 등 수많은 생명체가 빨밭에 뒤섞여 살아간다. 새들은 이들 생명체로 배를 채우고, 사람은 갯벌의 풍요를 거둬 일용할 양식으로 삼는다.



사진 / 무안힐토갯벌랜드 제공

2

- 1 무안갯벌에서 조개, 게 등을 채취하는 어민들
- 2, 5 갯벌체험에 참가한 어린이들
- 3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흰발농게
- 4 망둥이
- 6 농게들이 갯벌 위를 걷고 있다.



3



4

무안갯벌은 신안군 지도, 증도, 입자도로 가는 길목인 무안군 해제면 동쪽 해안에 위치한다. 맞은편으로 멀리 함평의 해안선이 가로막고 있어 바닷물이 들면 호수 같은 느낌이 든다. 하지만 북쪽 함평만 입구로는 바닷물이 드나든다. 지금 그곳에는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해제면과 영광군 염산면을 잇는 칠산대교가 건설되고 있다.

무안갯벌은 약 3천 년 전 해수면이 상승해 함평만 안쪽의 무안 연안까지 바닷물이 파고 들며 형성되기 시작했다. 무안 연안은 만(灣)의 입구가 좁고 안쪽이 넓은 지형이어서 갯벌이 발달하기 좋았다. 밀물과 썰물은 하루 두 번씩 무안 연안에 바다로부터 실어온 부유물을 쌓았고, 강과 하천은 육지에서 흙과 부유물을 실어왔다. 퇴적물은 1년에 0.5~2mm씩 쌓이며 아주 천천히 갯벌을 만들어갔다. 파도가 잔잔한 곳에는 펄 갯벌이 발달했고, 차가운 겨울 북서풍의 영향을 받은 남동쪽에는 모래 함량이 높은 갯벌이 생겨났다. 밀물 때 바다가 되고 썰물 때 육지가 되는 땅에는 갯벌에 적합한 생물이 터전을 이뤄 살아가고, 바닷물과 민물이 섞이는 곳에는 염생식물이 군락을 이뤘다. 그리고 이를 먹이 삼아 물새가 찾아들었다. 무안의 비옥한 황토는 갯벌로 유입되며 더 깨끗하고 건강한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를 만들었다. 넓이 42km<sup>2</sup>의 무안갯벌은 2001년 국내 최초 갯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8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같은 해 국내 최초 갯벌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사진 / 무안힐토갯벌랜드 제공

5

6

**갯벌 생물의 파라다이스**

갯벌 탐방은 무안갯벌도립공원에 들어선 무안황토갯벌랜드에서 하면 된다. 드넓게 펼쳐진 갯벌에 탐방로와 갯벌체험학습장이 마련돼 있다. 배후지에 생태갯벌과학관, 분재테마전시관, 황토이글루, 캐러밴, 오토캠핑장, 황토찜질방이 들어서 있다. 하룻밤을 보내며 갯벌을 배우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갯벌테마파크다.

탐방로로 접어들자 '흰발농게 서식지 보전안내' 표지판이 서 있다. 농게는 수컷의 집게다리 한쪽이 커다란 것으로, 흰발농게는 집게다리가 하얀 종을 말한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돼 있다. 표지판 뒤 모래가 섞인 황톳빛 갯벌로 눈길을 돌리자 하얀 밥알이 흩뿌려진 듯한 광경이 관찰된다. 바로 흰발농게다. 커다란 흰색 집게발을 올렸다 내리는 모습이 결투를 신청하는 투사 같다.

갯벌 안쪽에는 붉은 빛깔 일반 농게들이 살고 있다. 칠게와 망둥이, 쟁뚱어, 등근얼룩총알고둥이 함께 서식한다. 보이지 않지만 무안의 특산물인 낙지도 있다. 칠게는 다리를 한껏 곧추세워 등딱지가 마르도록 일광욕을 즐기고, 망둥이와 쟁뚱어는 물기가 마를 새라 물이 고인 곳에서 몸을 뒤집는다. 딱총새우는 '딱~궁' 하는 소리를 내며 존재를 알린다. 하지만 갯벌 생물들은 가까이 다가가면 쩍새게 모습을 감추거나 멀리 달아난다.

민미경 해설사는 "한 곳에 가만히 멈춰 서서 조용히 있으면 게, 망둥이, 쟁뚱어가 갯벌 위로 나와 움직이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멀리서는 노랑부리백로와 왜가리, 검은머리물떼새가 바지락, 굴, 게 등으로 배를 채우기 위해 갯벌 속을 기웃거



1 탐방로에 설치된 바다환경비 2 칠면초 군락이 펼쳐진 무안갯벌 3 탐방로를 점령한 갈매기들 4 생태갯벌과학관

린다. 무안갯벌에는 도요새, 물떼새, 백로, 왜가리, 오리 등의 철새들이 계절을 달리해 찾아온다. 민 해설사는 "검은머리물떼새는 바지락이나 굴을, 알락꼬리마도요는 칠게를 가장 좋아하는데 팔이 묻어 있으면 물에 씻어 먹는다"고 말했다. 특히 "알락꼬리마도요는 부리로 집은 칠게를 흔들어서 다리를 떼어낸 후 물에 씻어 먹는다"고 설명했다.

갯벌에는 대표적인 염생식물인 칠면초 군락이 붉게 펼쳐져 있다. 1년생으로 태어나서 소멸할 때까지 다양하게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흔히 8~9월에 꽃이 피고 10월이면 자주색으로 변했다가 사라지는데 이곳 칠면초는 칠산바다에서 불어오는 북서풍이 강해 9월이면 모두 소멸한다고 한다.

썰물의 시간이 지나고 밀물이 갯벌을 침범하면 갯벌을 터전으로 삼은 생물들은 다음 썰물을 기다리며 자취를 감춘다. 어떤 것들은 바닷물을 피해 탐방로나 계단 위로 오르기도 한다. 갯벌에서 유일하게 남은 육지인 탐방로는 갈매기의 차지가 된다.

**생명 꿈틀대는 갯벌의 아침**

해 뜰 무렵, 무안갯벌은 다시 바다 너머 육지에 닿을 듯 광활한 속살을 드러내 보였다. 시커먼 갯벌 사이로 난 뱀장어 같은 물길은 태양의 기운을 받아 은은한 금빛으로 반짝였다. 농게, 칠게들은 빨발 위를 질주하거나 몸을 곧추세우고 아침 체조를 하고, 새들은 우아하게 날갯짓을 하며 아침거리를 찾았다. 이내 태양이 높이 떠오르고 수



5 분재테마전시관 6 홀통해수욕장 야영장

많은 생명체로 뒤덮인 빨밭이 다시 펼쳐졌다. 탐방로에는 밀물 때 올라온 수많은 둥근얼룩총알고둥이 발 디딜 틈 없이 바닥에 붙어 있었다. 멀리에서는 아주머니들이 빨밭 위를 옮겨 다니며 조개, 게 등을 거뒀었다.

무안황토갯벌랜드의 생태갯벌과학관은 필수 방문지이다. 무안갯벌에 서식하는 농게와 칠게를 비롯해 엽낭게, 도둑게, 쇠스랑게 등 살아있는 게를 볼 수 있다. 갯벌의 생성 과정과 갯벌 동식물의 식생, 공생관계 등을 모형, 사진, 영상 등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조류관찰대와 망둥이, 숭어 치어를 볼 수 있는 수조도 있다. 생태갯벌과학관 옆에는 분재테마전시관도 있다. 해저면은 국내 분재 생산의 50%를 담당하는 최대 생산지이다. 이곳 출신 분재전문가 고 문형렬 씨가 기증한 다양한 모양의 분재를 감상할 수 있다.

한편 무안갯벌 남쪽으로 차로 10분 거리의 현경면에는 홀통해수욕장이 있다. 유료로 야영할 수 있는 울창한 곰솔이 있다. 수심이 얇고 바다가 잔잔해 가족 피서지로 좋다.

**Tip**

**[ 무안황토갯벌랜드 이용 안내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에 휴관한다.  
입장료는 어른 4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 숙박시설 이용객은 무료다.  
갯벌체험은 5~11월 물때에 맞춰 1일 2회 갯벌학습체험장에서 무료로 운영된다. 체험시간은 30~60분. 굴 껍데기나 띠개비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장화나 두꺼운 양말은 개별 준비한다. 황토이글루와 황토 울막, 캐러밴, 방갈로, 오토캠핑장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getbol,muan.go.kr, ☎ 061-450-5631~4



**고창 운곡습지**

**무관심과 시간이 만든 생태 낙원**

댐이 들어서며 저수지가 생기고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30여 년. 수몰되고 버려진 경작지와 사람이 살던 마을은 총 86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 낙원으로 변모했다. 원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무관심과 시간이었다.

1981년 전남 영광에 한빛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서며 발전용 냉각수를 공급하기 위한 운곡댐이 건설됐다. 댐으로 물길이 막히자 커다란 저수지가 생기면서 운곡리와 용계리가 수몰됐고 터전을 잃은 주민들은 고향에 작별을 고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기고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그곳에는 원시 생태계가 생겨났다. 이렇게 형성된 운곡습지는 2011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같은 해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운곡습지에는 수달, 황새, 삿, 담비, 구렁이, 새호리기, 팔색조, 붉은배새매, 황조롱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과 천연기념물이 원시의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다.



1 원추리꽃 활짝 핀 운곡습지 2 나무 데크 탐방로 주변의 습지 풍경  
3 붉은배새매 모양 이정표 4 노란색 꽃을 피운 야리엔  
5 열대 밀림을 연상시키는 운곡습지



**열대 밀림 같은 탐방로**

운곡습지에는 4개의 생태탐방 코스가 조성돼 있다. 운곡습지를 보려면 고인돌유적지 탐방안내소에서 출발해 습지를 관통하는 1코스(왕복 7.2km)나 친환경주차장 탐방안내소에서 시작해 운곡저수지를 한 바퀴 도는 2코스(9.6km)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고인돌유적지 탐방안내소에서 탐방을 시작했다. 싱그러운 초록빛 풀밭에 고인돌이 점점이 박혀 있는 비탈길을 올라 나무가 하늘을 가릴 듯한 시원한 숲길을 지나면 탐방로가 시작된다. 나무 데크 탐방로는 어른 한 명이 지날 정도 폭이 좁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다. 데크 아래 있는 식물도 빛을 받을 수 있게 데크 디딤판 나무의 간격을 일정하게 띄워놓았다. 탐방로 주변은 열대의 밀림 속에 있는 듯 울창하다. 탐방로 주변은 초록빛이 뽀뽀할 뿐 습지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탐방로 주변은 물이 어른 가슴 높이까지 차오르는 습지다. 자세히 보면 운곡습지의 주요 수종인 버드나무 주변을 수질 정화 식물인 고마리가 한가득 뒤덮고 있다.



1 사진 / 고흥군 제공



2 1, 3 생태연못 풍경 2 수생식물 가득한 운곡저수지 3



4 운곡습지생태공원에 피어 있는 송엽국  
5 동양 최대 '운곡 고인돌' 6 고인돌 유적지

생태둑병으로 향하는 길에서는 옛 마을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이 지역에서는 한때 9개 마을 주민 158세대, 360여 명이 닥나무를 재배해 한지를 만들었고 논과 밭을 개간해 농사를 지었다. 축사로 보이는 건물의 벽이 수풀로 가득 뒤덮인 채 남겨져 지나간 시간을 증명한다.

생태둑병을 지나자 수풀 무성한 나무 데크 탐방로가 사라지고 저수지의 물가를 따라 흙길이 이어진다. 백로, 왜가리, 논병아리, 쇠기러기를 볼 수 있다는 조류관찰대에 서자 저수지가 시원스럽게 펼쳐진다.

다시 10여 분을 걸자 제1코스의 최종 목적지인 운곡습지생태공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생태공원은 연못을 만들고 수로를 정비한 후 다리를 놓아 식물원을 방문한 듯하다. 조만간 습지홍보관도 문을 열 예정이다. 생태공원 인근에는 둘레 16m, 높이 5m, 무게 300t에 달하는 동양 최대 '운곡 고인돌'도 있다.

운곡습지를 탐방하기 전후로는 고인돌유적지를 돌아보도록 한다. 고흥은 국내 최대의 고인돌 유적지이다. 총 1천665기가 있는데 운곡습지 탐방안내소 인근에 442기가 모여 있다. 탁자식, 바둑판식, 지상석곽식, 개석식 고인돌을 한 곳에서 접할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청동기시대 각종 유물과 생활상, 고인돌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도 있다. 박물관 인근 유네스코 고흥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에서는 디오라마 AR 시스템과 첨단 영상 장비를 통해 운곡습지, 고흥·부안갯벌, 선운산도립공원, 동식물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조용호 자연환경해설사는 "구름이 많이 끼는 골짜기여서 운곡이란 이름이 붙었다"며 "습지 아래를 유문암이 떠받치고, 유문암이 풍화된 점토가 쌓여 물이 잘 빠지지 못하면서 습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갈참나무와 졸참나무, 굴피나무, 구지뽕나무, 오동나무, 철나무 등 다양한 식물이 지꾸만 걸음을 멈추게 한다. 피꼬리, 직박구리의 청아한 울음소리도 들려온다. 화려한 빛깔의 팔색조도 종종 관찰된다고 한다. 이정표에는 담비, 붉은배새매, 큰오색딱따구리 등을 묘사한 그림이 담겨 있다. 모두 운곡습지에 서식하는 동물이다.

**지난 세월 보여주는 옛 마을의 흔적**

생태연못에 도착하자 화사하게 피어난 꽃들이 반긴다. 고마리가 뒤덮은 연못 주변으로 원추리가 주황색 꽃잎을 활짝 열고, 어리연은 작고 노란 꽃망울을 수줍게 열기 시작했다. 애기부들은 핫도그 모양 열매를 달고 바람에 대롱거린다. 고요하고 평온한 풍경 속에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 INFORMATION

## 둘러볼 곳



### 내린천 래프팅 & 카야킹

내린천 총 길이 약 70km 중 20km가 래프팅과 카야킹 코스로 개발돼 있다. 절경이 빼어나고 수량이 풍부하며 여러 난도의 급류가 있어 가족, 친구들과 시원한 한때를 보낼 수 있다. 이용 가격은 업체, 코스마다 다르다.

### 원대리 자작나무숲

'나무의 여왕'이라 불리는 자작나무 70만여 그루가 숲을 이루고 있다. 초록빛 숲 속에서 곧게 뻗은 자작나무의 하얀 자태가 몽환적인 느낌을 준다. 10월 31일까지 개방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입산할 수 있다.



### 밀리터리 테마파크

무안 출신 옥만호 전 공군참모총장이 사재를 들여 폐교 대지에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한국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군용기, 세계 항공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다. 탱크와 비행기를 조종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체험장, 무기전시장, 스크린 사격장, 적성물자전시실, 유격 훈련 체험장을 갖췄다.

입장료는 어른 3천원, 청소년·어린이 1천원

☎ 061-452-3055



### 고창읍성

고창읍에 있는 둘레 1천684m, 높이 4~6m의 조선 시대 성곽. 관아를 비롯해 22개 건물이 있었지만 모두 소실됐고 현재 공북루(북문), 진서루(서문), 등양루(동문), 동헌, 객사, 내아, 향청, 옥사 등이 복원돼 있다. 여인들이 무병자수를 기원하며 손바닥만한 돌을 머리에 이고 성을 도는 성 밭기놀이가 전해진다. 밤이면 환하게 조명을 밝혀 산책하기 좋다.

입장료는 어른 2천원, 청소년 1천200원,

어린이 800원

### 회산백련지

무안 일로읍 복용리 회산마을에 있는 동양 최대의 백련 자생지. 7월부터 연잎이 연못을 덮기 시작해 3개월간 둘레 3km, 면적 33만㎡의 연못을 빼곡하게 채운다. 주막만 한 하얀 연꽃이 피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가시연, 아리연, 개연, 물질경이 등과 붕어, 잉어, 가물치, 매기 등 토종 물고기가 살고 있다. 8월 9~12일에는 연꽃축제가 열린다.

입장료는 어른 4천원, 청소년 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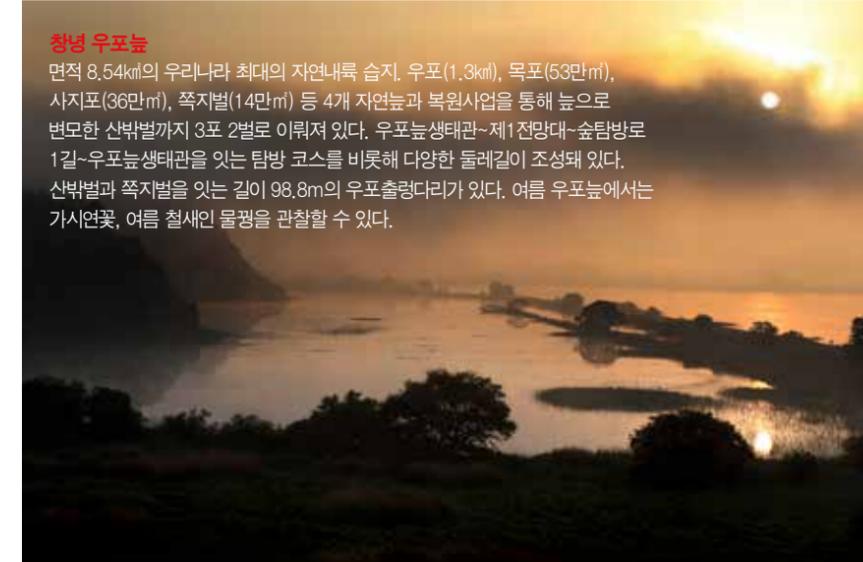
어린이 1천500원

☎ 061-285-1323



## 가볼 만한 국내 습지

람사르협회에 등록된 우리나라 습지는 우포늪, 신안 장도 산지습지, 순천만·보성갯벌, 제주 물영아리오름 습지·물장오리오름 습지·한라산 1100고지 습지·동백동산습지, 울주 무제치늪, 태안 두웅습지, 전남 신안 증도 객설, 서울 한강 밤섬 등 모두 22곳이다.



### 창녕 우포늪

면적 8,54km<sup>2</sup>의 우리나라 최대의 자연내륙 습지. 우포(1.3km), 목포(53만㎡), 사지포(36만㎡), 쪽지벌(14만㎡) 등 4개 자연늪과 복원사업을 통해 늪으로 변모한 산박벌까지 3포 2벌로 이뤄져 있다. 우포늪생태관~제1전망대~숲탐방로 1길~우포늪생태관을 잇는 탐방 코스를 비롯해 다양한 둘레길이 조성돼 있다. 산박벌과 쪽지벌을 잇는 길이 98.8m의 우포출렁다리가 있다. 여름 우포늪에서는 가시연꽃, 여름 철새인 물평을 관찰할 수 있다.



### 태안 두웅습지

충남 태안 신두리해수욕장 부근 해안사구 남쪽에 형성된 습지이다. 해안사구와 배후 산지 골짜기의 경계 부분에 담수가 고여 형성됐다. 텃새인 황조롱이와 천연기념물 323호인 붉은배새매 등 조류 39종, 멸종위기종 2급인 금개구리와 맹꽁이 등 양서류 14종, 식물, 곤충 등이 살고 있다.

### 순천만·보성별교갯벌

전남 순천 별량면과 해룡면, 도사동 일대 순천만 갯벌과 보성군 별교읍 해안가 갯벌을 포함한다. 2006년 국내 연안 습지로는 최초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됐다. 봄에는 안개, 여름에는 짙은어와 농게, 가을에는 갈대와 칠면초, 겨울에는 철새를 만날 수 있다. 특히 용산전망대에서 감상하는 순천만의 해넘이가 아름답다.



### 전남 신안 증도갯벌

전남 신안 증도와 병풍도 일대로 모래해변, 자연형 절벽해안선, 소나무숲, 태평염전, 염생식물 군락지 등이 있다. 멸종 위기종인 노랑부리백로, 가창오리, 알락꼬리마도요가 자주 출현한다. 단일 염전으로는 국내 최대인 태평염전에서 소금 채취 체험을 하고 소금박물관을 돌아볼 수 있다. 함초, 칠면초, 나문재 등이 있는 염생식물원도 있다.



### 제주 1100고지 습지

한라산 고원지대에 형성된 대표적인 산지습지로서 16개 이상의 습지가 불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곳 습지 동식물에 관한 안내문이 탐방로 곳곳에 설치돼 있다. 한라산에서만 서식하는 멸종위기 1급의 매와 2급인 말뚝가리, 조롱이,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 습지 낮은 곳에 고인 물은 야생동물의 식수원이 되고 있다. 나무로 만든 생태탐방로가 있어 습지를 관찰하기 좋다.